



새로 만날 소식지 이야기

〈나눔터〉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눔터〉,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혹시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나의 일상과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셨나요?
 혹은 좀 더 날카로운 문제 제기, 깊이 있는 담론이 아쉬우셨나요?
 중간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중간까지만 읽고 덮으셨나요?
 이렇게 느끼셨던 독자 여러분께,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2009년 가을, 나눔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나눔터 편집팀입니다.
 독자 분들께 인사드리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다소 조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나눔터'를 위한 지면을 마련한 것은
 독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계간소식지 〈나눔터〉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새롭게 변모한다는 소식이지요.

나눔터
 edutainment

안녕! 그동안의 나눔터

1991년, 상담소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나눔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계간소식지이자 우리 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주제로 하는 정기간행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몇 번의 발행주기와 판형 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보다 참신하게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고, 각 코너를 통해 상담소의 활동,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 회원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현재의 나눔터는 '기획특집', '쟁점과 입장' 등의 코너를 통해 이슈를 논하고, 쟁점에 대한 상담소의 입장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생존자 말하기'를 통해서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점과 문제점 등을 주로 상담활동가들의 글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화 읽기', '몸 이야기' 등을 통해 일상의 경험과 교차하는 다양한 글을 실어 독자들의 삶에 공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나눔터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대중에게 알려내고 우리 상담소의 활동과 연구를 기록하고 축적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담소 회원 님들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표지를 포함해 40페이지의 분량은 위의 두 목표를 달성하기에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활동가들은 고심했습니다. 한 권, 한 권, 목적에 충실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앞부분을 보고 덮고, 뒷부분만 보고 책장에 꽂아놓는 소식지 말고, 좀 더 알차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친근하게 기획할 수는 없을까?